



HPAI 발생에 따른 보상대책

# 농가 회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돼야

- 최소 생산비선 수매 요구 -

**2003**년 발생한 HPAI는 1,500여억원의 피해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을 만큼 시가 확산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에 정부에서도 1종 인수공통전염병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발생농장과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내 가금류와 전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류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살처분 농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익산·김제에서 3차례 발생하면서 살처분 조치가 취해진 농가들은 총 171농가로 1,121천마리에 해당되며 4차 발생지역인 아산에서도 23천마리가 살처분 조치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번 살처분 조치가 취해진 농가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난 5일자로 발표하였다. 한편 경계지역(3~10km)내 이동제한 조치된 가금류에 대해서도 15일자로 수매 방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2004년도에 추진되었던 전국적인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계지역 내의 물량에 대해서도 기대 이하의 수매가격으로 인해 농가들이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발표된 보상방안 대책에 대한 정리와 양계농가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았다.

## 1. HPAI 발생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농림부는 12월 5일 당정협의를 거쳐 전북 익산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닭·오리, 계란 등의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가축 등의 소유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초 신고일(11.22) 이전 7일간(11.15~21) 산지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시가 보상하며, 구체적인 가격은 시군의 보상금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였다.

특히, 살처분으로 인한 당장의 생계를 돕기

위해 살처분 보상평가반의 평가여부와 상관없이 보상금액을 추정한 후, 그 추정금액의 50%는 우선 지급되며, 보상금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평가금액과 지급 금액 차액을 정산 처리하도록 하였다.

둘째, 살처분 농가(계열업체는 제외, 단 계열업체 소속 농가는 포함)는 살처분 후 이동제한으로 입식을 제한 받기 때문에 재입식 출하 때까지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이동제한 조치 이전에 닭·오리를 출하한 후, 이동제한 조치로 입식을 못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생계 및 소득 안정



도록 하였다.

여섯째, 조류인플루엔자로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발생 지역으로부터 10km 이내(방역조치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각종 정책자금(농업경영자금, 농특자금, 축발자금, 부채대책자금, 농업종합자금 등)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원금은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

자금은 월 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최고 1,300만원한도에서 구간별로 지원된다.

셋째,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구매비용을 연리 3%(2년 거치 3년상환)로 지원된다.

넷째,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영업이 중단된 부화장, 사료공장, 도계장 등에 대하여는 경영안정을 돕고자 부화능력(사료생산능력), 부화비용(사료판매가격) 및 영업중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리 3%(2년거치 3년상환)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다섯째, 경계지역(3~10km 이내)의 양계산물은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 계열화 농가가 아닌 비계열화농가의 양계산물은 “방역상황이 진정된다고 판단되는 12월 중순부터” 농협을 통해 수매시점의 시가로 수매를 실시하

간을 연장하며,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2년 동안의 이자는 감면된다.

아울러 발생조치지역 이외의 익산시 관내 축산농가와 익산시 관내 경종농가 등 모든 농가에 대하여는 위의 각종 정책자금에 대하여 방역조치지역 축산농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이 2년간 연장 조치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농기들이 닭·오리 사육을 재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현재 유동중인 닭·오리·계란은 안전하므로 국민들도 양계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본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 지난 12월 1일, 닭·오리를 먹고 AI에 감염시 최대 20억원을 보상하는 AI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였다.



## 2. 경계지역(3~10km)내 가금산물 체화 물량 수매 방안

HPAI발생으로 소비가 큰 폭 감소하면서 전국적으로 산지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계란은 상인들이 가져가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AI가 발생된 후 한달 가까이 되어서야 정부에서 경계지역(3~10km)내 가금산물에 대해서 수매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수매내역을 보면 닭·오리는 농협에서 계란은 시·군에서 담당키로 하였으며, 체화물량 해소를 위해 육계(토종닭 포함)·오리는 계열농가를 제외한 일반농가 물량에 한해 시가(수매 시작일 기준 전순 산지가격)로 구매하여 냉동지육으로 비축하며 500수 이상 농가 중 출하일령이 경과하였거나 임박한 농가물량을 우선 수매키로 하였다.

계란은 농가의 체화물량 해소를 위해 시중유통 가격과 유통업자 구매희망 가격과의 차액(25원/개)을 농가에 지원키로 하고 농가는 판매한 내역을 증명해야 한다.

소요재원은 닭·오리고기는 익산·군산에 2,071백만원, 김제에 1,897백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계란은 익산·군산은 75백만원이며, 김제는 581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계란의 경우 산지가격이 '05년 경영비(850원/10개) 이상인 경우나 지원 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1월 1일 이전에 거래되는 판매분에 한해 25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닭고기 역시 육계의 계획물량 이내에서 수매하되 '05년 경영비

수준(950원) 이상인 경우 중단된다.

표1. 닭고기 가격(11.17 ~ 12.22)

일자	대	중	소	비고
11/17	1,040	1,140	1,240	
11/18	940	1,040	1,140	
11/20	940	1,040	1,140	
11/21	940	1,040	1,140	
11/22	940	1,040	1,140	
11/23	940	1,040	1,140	
11/24	940	1,040	1,140	
11/25	840	940	1,040	◀1차HPAI발생 확인
11/27	740	840	940	◀2차HPAI발생 확인
11/28	640	740	840	
11/29	640	640	740	
11/30	640	640	740	
12/01	640	640	740	
12/02	740	740	840	
12/04	840	840	940	
12/05	840	840	940	
12/06	840	840	940	
12/07	840	840	940	
12/08	840	840	940	
12/09	740	740	840	
12/11	740	740	840	◀3차HPAI발생 확인
12/12	740	740	840	
12/13	740	740	840	
12/14	740	740	840	
12/15	740	740	840	
12/16	740	740	840	
12/18	840	840	940	◀경계지역 수매시작
12/19	840	840	940	◀토종닭 수매가격 인상요구
12/20	940	940	1,040	◀3농가(토종닭) 2천마리수매
12/21	940	1,040	1,040	◀4차HPAI발생 확인
12/22	940	1,040	1,040	

출처 : 대한양계협회



### 3. 정부대책에 따른 양계농가들 반응

경계지역(3~10km)내 지역에서 18일부터 수매계획을 세웠지만 닭의 수매가격이 1kg당 758원에 책정되면서 수매 거부사태가 일어났고 첫날부터 수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4년에도 시가보상에 따라 kg당 640원에 수매가 이루어지면서 불만의 소리가 높았었다. 농가들은 최소한 생산비선인 kg당 1,100원선은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

AI 발생이전일 11/17~21일 사이 닭고기 가격은(대한양계협회 대닭 기준 원/kg) 1,040원에서 940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발생이후 최대 640원까지 떨어졌으며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1,000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표1).

1차~2차 발생이후 소비감소 폭이 다소 진정되는 듯 했으나 3차 발생이 이어지면서 생산비에 못 미치는 가격이 12월 하순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4차 HPAI발생이 이어지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가격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건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그동안 수매를 요구하던 양계농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수매 방안에 대해서 양계농가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양계사육 농가들은 보상금 기준인 시가수매



가 생산비에도 못미치고 있어 현실적인 수매기준을 적용하길 바라고 있다.

수매가 실시된 18일 첫날은 수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수매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20일부터 토종닭 3농가 27천마리가 수매 되었으며 21일에는 토종닭 3천마리가 수매 되었다. 22일 육계가격은 대닭 940원, 중닭 1,040원, 소닭 1,040원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경계지역 이외에 있는 농가들도 정부의 보상조치가 전국적으로 소비급감과 가격폭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전하며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양계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계**